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010 용인 처인성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중고등부	국 적	내국인
공모분야	홍보콘텐츠	세부분야	처인성 이야기 책자(단편)

출품자 프로필			
성 명	이기보	소속(학교명)	신갈 고등학교

스토리텔링 창작물 개요	
제 목	스님과 부곡 민과 처인 성 전투
주 제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다.
주요내용	<p>부곡 민인 덕근이는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와 함께 살아간다. 스님인 김윤후를 따르고 그를 따라 절에 올라간다. 그러던 중 쓰러진 남자를 발견하고 몽고군의 침략을 듣는다. 새벽에 스님들이 마을로 내려가 부곡 민들과 피난민들에게 연설하여 모두의 힘을 합친다. 몽고군을 격퇴하고, 제 정비한다. 다음 날, 몽고군이 다시 쳐들어온다. 가볍게 막아내고, 몽고군의 공격이 다시 시작된다. 살리타이가 앞에 나서서 지휘하고, 정예병들로 구성된 몽고군이 부곡 민들을 농락한다. 성의 반이 함락되어질 쯤, 두식과 석돌이 활로 살리타이를 맞추어 고꾸라뜨린다. 대장을 잃은 몽고군은 급히 후퇴한다. 스님 김윤후에게 벼슬이 내려오지만 거부한다. 스님은 덕근이에게 마을을 지켜달라는 말을 하고 사람들이 아직 자고 있는 새벽에 길을 떠난다.</p>

산으로 둘러싸여 눈이 듬뿍 쌓인 나무들이 한 장의 화폭처럼 보이는 장관사이에 위치한 처인성. 흙으로 쌓아올린 처인성은 오늘도 부곡 민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을 중앙에 위치한 커다란 고목나무를 중심으로 오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커다란 시장이 마을에 빼곡히 들어섰다. 시장은 귀를 막아도 바로 앞에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시끌벅적했다.

그런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논과 밭들 사이로 소년이 눈에 띄었다. 나이는 열다섯 살, 이름은 덕근이라고 하는 부지런한 아이였다.

“올해는 보리가 풍년이겠네.”

덕근이는 눈으로 가득 덮인 보리밭을 보았다. 보기만 해도 밥을 먹은 것 같이 뱃속이 가득한 느낌이었다.

“눈을 많이 내려주세요.”

눈을 한 움큼 쥐어 만지며 집으로 돌아왔다.

수수깡을 엮어 만든 울타리와 익숙한 초가집이 보였다. 초가집에는 눈이 두텁게 쌓여있어서 치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덕근이는 어머니의 밥이 생각나 부리나케 달려갔다. 차갑고 상쾌한 아침공기를 가르고 지나가는 건 정말로 기분이 좋았다.

“다녀왔어요. 엄마.”

“오냐, 이리 들어와 앉으렴, 밥 식는다.”

엄마는 마루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덕근이는 뒹신을 벗어 던지고 올라왔다. 엄마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덕근이는 아무렇게나 벗은 뒹신이 생각났다.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하렴.”

엄마의 말을 따라 밥이 있을 방으로 들어갔다.

“우와, 밥이다.”

“많이 먹어라.”

엄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젓가락과 숟가락이 번갈아 오갔다. 한참을 맛있게 먹던 중 중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십니까.”

무뚝뚝하지만 친근함이 묻어덕근이는 익숙한 목소리였다. 덕근이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마당에 서있는 스님의 앞자락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었다.

“스님!”

“애가 밥먹다말고 어디 가니! 안녕하세요, 스님. 시주라면 여기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뒤쫓아 나오셨다. 아마 식사 도중에 나왔기 때문일 것이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께서는 필시 복 받으실 겁니다.”

엄마는 없는 쌀을 한바가지 가득 퍼다 주었다.

“덕근아, 스님하고 같이 며칠 간 절에 머물다 오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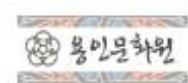
“진짜?”

덕근이는 하늘을 덕근이는 기분이었다. 스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농사일 때문에 갈 수 있는 날이 흔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허허, 그것도 좋겠구나, 덕근아, 이제부터 시장에 갈 테니 잘 따라오렴.”

“네! 다녀올게요, 엄마.”

“그래, 얼른 다녀오렴.”



“덕근이, 좋겠구나. 그럼 소생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집에 복이 깃들기를.”

덕근이는 스님의 뒤를 따랐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진 초가집들 사이로 스님은 넓은 길을 따라 걸었다.

“옛이라도 먹을 테냐? 절에 가면 군것질은 못한다는 건 잘 알고 있지?”

“스님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너석, 대견하구나.”

스님은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커다란 고목나무가 보였다. 구름을 뚫고 올라갈 높이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나무를 중심으로 시장이 펼쳐져있었다. 옛장수의 가위소리, 닭이 우는 소리, 귀한 책을 파는 사람까지. 여러 가지가 뒤섞인 시장은 정말로 없는 게 없었다.

“이봐, 자네 그거 들었나? 몽고군이 코앞까지 왔다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건 말이라고 하나, 말이 씨가 된다고 한다는데 그런 말말아!”

주막을 지나며 아저씨들이 하는 대화가 들렸다. 정신이 아찔해졌다. 아버지를 빼앗은 몽고군이 무서웠다. 덕근이는 스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너석, 사내가 겁이 많아서 되겠느냐. 늦기 전에 얼른 돌아가자 구나.”

스님은 서서히 저무는 해를 가리키며 말했다. 덕근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스님의 뒤를 따라 산을 올라갔다.

얼어붙은 계곡이 보이고 눈으로 덮은 나무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눈이 덮여 움직이기 힘든 산길에서 거의 다 왔을 무렵, 스님이 쓰러져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스님은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

“자, 얼른 올라가자. 길이 조금 밖에 남지 않았구나.”

스님은 아저씨를 업고 길을 재촉했다. 덕근이는 뭐가 뭔지 모른 채 스님을 따라갔다. 절에 도착하고, 스님은 바로 아저씨를 방으로 옮겨다 눕혔다. 따뜻한 물을 가져올 것을 다른 스님들에게 부탁하고 아저씨 옆에서 간호했다.

“으으, 스님이십니까?”

쓰러졌던 사람은 상체를 일으켰다.

“정신이 드십니까? 왜 그런 곳에 쓰러지셨습니까?”

“큰일입니다 스님. 몽고군이, 몽고군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무슨?! 몽고군이 벌써 이 근처까지 왔습니까?”

“예, 어젯밤은 정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죽이고, 불 지르고.....”

“고양 것들. 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일단 폭 쉬세요. 제가 내일 주지스님에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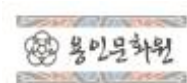
산을 올라와서 피곤했던 덕근이는 오뎅이처럼 고개를 끄덕이다가 앓은 채로 잠들어버렸다.

차가운 공기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덕근이는 따뜻하고 폭신한 이불을 잡아당겨 머리끝까지 덮어버렸다. 그렇게 단 잠에 빠져들자 문이 열리며 스님이 들어왔다. 덕근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섰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다.

“허허, 너석, 참선할 시간이다. 얼른 세수하고 오너라.”

“네.”

덕근이는 더 못자는 걸 아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에는 벌써 세수를 끝마친 스님들이 아침운동을 하고 있었다.



“덕근이 왔구나. 이제 운동도 끝나가니 참선할 준비를 부탁하마.”

“네.”

덕근이는 걸레를 들고 이동했다. 참선을 드리는 넓은 공간은 불상이 놓아져 있었고 향을 피우는 제단이 있었다. 불상을 닦기 위해 발을 들이자 바닥은 화들짝 놀랄 정도로 차가웠다. 그렇게나 차가운 바닥인데도 벌써부터 참선을 하는 스님이 계셨다. 뒷모습만 보고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김윤후 스님이었다. 참선을 드리는 중에는 방해할 하면 안 되기에 발소리를 죽으며 불상에 다가갔다. 평소에 집중해서 참선을 하던 광경과는 다르게 스님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듯이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

여쭙어보고 싶었지만 그건 참선이 끝난 후에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걸레가 얼어붙을 것처럼 차가웠던 불상을 다 닦자마자 주지스님과 함께 다른 스님들이 들어오셨다. 김윤후스님이 앞서 참선을 드리고 있었기에 주지스님은 다른 스님들을 조용히 앉힌 후에 참선을 시작하셨다. 그리고는 김윤후스님에게로 천천히 다가가셨다.

“참선 중에 다른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냐.”

“주지스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긴히?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아하니 깊은 사정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 날 따라오너라. 너희들은 참선을 계속 수행해라. 윤후와 몇 마디 나누고 오겠다.”

“예, 주지스님.”

스님들은 일제히 대답했고, 바로 수행에 임했다. 덕근이는 걸레를 빨아야했기 때문에 방에서 나왔다.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

덕근이는 자연스레 호기심이 생겨 저도 모르게 스님의 뒤를 밟았다. 문지방에 닫히는 소리와 함께 창호지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 하려는 말은 무엇이더냐.”

“소생, 몽고군에 의해 피해가 막심한 백성들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옵니다.”

“홀룡하구나, 말은 그것이 끝이 아닐 터, 참선을 수행해야하니 되도록 짧게 말하자구나.”

“예, 스님. 소생은 어젯밤 산길에서 눈에 파묻힌 사람을 구했습니다. 사정을 물으니 몽고군이 두려워 여기까지 도망쳐 내려왔다 하옵니다. 몽고군이 다시 국토를 짓밟고 있다 하였습니다. 소생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싶습니다.”

“살생은 엄연히 금지되어 있는 것이거늘.”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주지스님은 잠시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분명 네 말이 맞다. 부처님도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제일이라고 생각하셨을 게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살생을 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게 설령 몽고군이라도 살생은 금물인 것이다. 하지만 전쟁 통에는 살생을 금하면 당하는 법. 그러니 되도록 살생만큼은 최소화해라. 상대의 사족을 묶는 것만으로도 살생을 막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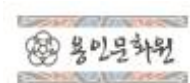
“명심하겠습니다.”

스님은 무언가 결심을 내린 것처럼 확고한 눈이었다. 그리고 주지스님에게 절을 했다.

“지금 바로 준비하거라, 내 모두에게 말하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대화가 끝난 것을 안 덕근이는 걸레를 말리려 밖으로 나갔다. 한 각이 지나고, 갑자기 스님들



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병장기를 챙기고, 식량과 여벌의 옷 등,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모두 다 챙겼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당에서 스님들이 차례로 서있었다. “덕근아, 여기는 곧 위험해질 테니 피난 짐을 싸도록 해라.”

“싫어요. 저도 도울래요.”

“안 된다. 전쟁은 장난이 아니야.”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 모두를 이끌어 절에서 나갔다. 주지스님만이 남아 배웅했다.

“덕근아, 엄마에게로 가렴. 아무리 절이라 해도 위험하단다. 그럼 다음에 또 보자구나.”

“네.”

덕근이는 힘 없이 대답했고, 마을로 내려갔다. 오늘따라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손과 귀가 얼음덩어리가 됐을 즈음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는 마을은 평소의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피난민들로 북적이는 마을은 갓난 애기의 울음소리로 울려 퍼졌다.

해가 중천에 걸렸다. 어느 때라면 따뜻한 햇살에 눈을 감고 낮잠을 잤을 기분 좋을 오후였겠지만 마을은 암울했다. 평소 같으면 산책을 하던 관리들은 이미 성을 버리고 도망친 건지 보이지 않았고, 지금은 스님들이 성에서 계획을 짜고 있었다. 덕근이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엄마~ 저 왔어요.”

“에구머니나, 우리 아들, 몽고군이 온다는 소식이 사실이니? 엄마는 소문을 못 믿겠더구나.”

“스님이 사실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게다가 몽고군을 피해서 온 아저씨도 만났고요. 그리고 스님이 위험하다고 피난 가셨어요.”

“그렇구나, 아들아, 스님들과 아저씨들을 따라 고향을 지키렴. 엄마도 뒤에서 도와주마. 이미 마을회의를 통해 내린 결론이야, 우리 손으로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겠니. 무턱대고 도망갈 수도 없단다.”

“알겠어요! 엄마의 말에 따라서 고향을 지킬게요!”

엄마의 응원에 덕근이는 다시 기운을 차렸다. 우리는 우리가 지킨다는 엄마의 말이 가깝게 느껴졌다.

“튼튼하구나, 자 얼른 스님이 있는 곳으로 가렴, 그 곳에 아저씨들도 있을 거란다. 가서 시키는 대로 잘 하고.”

“네!”

힘차게 대답한 덕근이는 성을 향해 달려갔다.

“최우선적으로 성문을 정비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마병을 중심으로 한 몽고군에게 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스님은 책상에 앉아 다른 스님들과 아저씨들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몸이 굳는 느낌이었다.

“저희는 싸움할 줄 모릅니다. 믿을 분이라고는 스님들 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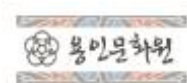
“피난을 가시는 건 아니겠지요?”

“고향을 버릴 바에는 차라리 이곳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 마음이면 좋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마을을 지켜냅시다.”

“정말로 지킬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스님을 따르겠습니다!”

덕근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저씨들이 일제히 스님에게 절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스님들도 당황하며 맞절했다. 영문을 모르는 덕근이는 멀뚱히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덕근이 왔느냐? 녀석, 피난 가랬더니 아직도 있구나. 마침 잘 됐구나, 마을에 가서 피난민들하고 마을 사람들을 장터에 있는 광장으로 와달라고 전해줄 수 있겠느냐?”

“네, 갔다 올게요.”

덕근이는 두 팔을 걷어 부치며 성 밖으로 나왔다.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웬지 기뻐다.

오일장이 들어서면 광장은 커다란 고목이 쪽 뻗어있는 넓은 장소였다. 스님의 말을 전하자 모든 사람들이 여기로 모였다. 대충 둘러봐도 백 명이 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은 몰랐다. 스님이 당당하게 걸어왔다. 그리고는 고목나무 앞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대로 피난을 택하다 길바닥에서 죽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다함께 힘을 합쳐 몽고군을 막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다면 저들은 필시 우리를 사정없이 농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성안에서 버틸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저들은 기마병이 주축을 이룹니다. 평지에서는 강할지 몰라도 성을 맞닥뜨리고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들에게 돌 맹이를 던지고 뜨거운 물을 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스님의 연설은 엄청났다. 피난민들은 웅성거렸다.

“스님의 말대로 저희 마을은 몽고에 대항하기로 했습니다. 무기는 충분합니다. 싸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저씨들이 나서서 말했다. 피난민들의 표정이 차츰 밝아지는 것 같았다.

“저희 피난민들도 돕겠습니다. 몽고에게 고향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피난민의 대표가 나서서 말했다. 아저씨와 악수를 하는 장면이 멋있었다.

“튼튼합니다. 마음이 한결 놓이는군요.”

그렇게 몽고군에 대항하기 위해 스님들과 마을의 아저씨들, 피난민이 하나로 단결했다. 피난민들은 대부분 가까운 마을에 있어서 서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농사일로 친구가 거의 없었던 덕근이는 조그만 음식을 나눠먹는 모습이 부러웠다.

“모, 몽고가 쳐들어왔다!”

그때, 스님이 혈레벌떡 뛰어오며 말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고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칼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칼이 없다면 농기구라도 좋습니다. 몽고를 격퇴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스님, 저희 부녀자들도 돕겠습니다. 성벽을 올라오는 몽고에게 뜨거운 물맛을 보여줘야죠.”

“튼튼합니다. 부탁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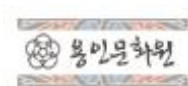
마을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다들 서둘러 장비를 챙기고 성으로 모였다. 성에서 몽고군이 오기를 기다린 스님은 저 멀리서부터 올라오는 흙먼지를 발견했다.

“몽고군이 옵니다. 성문을 닫으십시오.”

마을에서 힘이라면 제일가는 석돌이 아저씨가 단번에 성문을 닫았다.

“성문을 닫았습니다. 다음은 무얼 할까요?”

“부녀자들은 뜨거운 물을 위쪽으로 옮겨다주시고 가능하면 돌맹이도 구해다 주십시오, 지금 상



항에서는 사소한 것들조차 큰 도움이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쯤 몽고는 전열을 가다듬었다. 잠시 짧은 적막이 흐르고, 백기를 꽂은 몽고군 전령이 성으로 들어왔다. 전령은 거만하게 성으로 올라와 스님에게 다가갔다.

“그대는 고려인이 아니오?”

“맞소이다. 내 그대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말이 있어 같은 고려인으로서 직접 찾아왔소이다.”

“무슨 말이오?”

“중국을 제패한 몽고군들이오, 그 밖에 세계 각국이 이 몽고군에게 정벌 당했소. 당장 성문을 열고 저들을 받아들이시오. 그 편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오. 덧붙여 내 이름은 홍복원이오.”

자신을 홍복원이라 밝힌 사람은 품속에서 종이를 꺼내 스님에게 건네주었다. 스님은 편지를 펼쳐보았다.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너희들은 무슨 배짱으로 내 앞을 막아선단 말이나, 지금 내 말이 하늘의 이치이거늘 너희들이 정녕 하늘을 거역한다는 것이냐. 지금이라도 어리석은 짓을 멈추고 나와 머리를 조아린다면 반성하는 것으로 알고 상을 내리겠노라.]

오만방자한 말로 가득한 편지였다. 혈안이 된 스님은 당장 편지를 갈가리 찢어버렸다.

“결론은 당신이 몽고의 앞잡이란 말이구나. 당장 이자를 끌어내어 성 밖으로 굴러라!”

“똥이라! 네 이놈! 직접 충고하러 찾아왔더니 이게 무슨 수치이냐!”

“고향을, 나라를 버리고 녀석들의 앞잡이가 된 네놈이 수치다!”

가파른 성 밑에는 꼴사납게 굴러 내려가는 홍복원이 보였다. 몽고군 앞에 도착할 쯤에는 눈덩이가 되어있었다. 그걸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몽고군이 기다렸다는 듯이 성을 공격했다. 성이 가팔랐지만 훈련된 몽고군은 순식간에 올라왔다. 웃음기가 사라진 스님과 아저씨들은 화살을 쏘았다. 순식간에 열 개의 사다리가 성벽에 기대어졌다. 몽고군이 거의 올라왔을 무렵, 이웃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뜨거운 물을 퍼부었다. 사다리를 오르던 몽고군이 삼시간에 땅바닥에 떨어졌다.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은 힘을 모아 사다리를 밀어뜨렸다. 사다리는 반대로 넘어지면서 몽고군을 덮쳤다. 마치 나뭇가지가 개미를 덮치는 것 같았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스님이 격려의 말을 보태었다. 순식간에 우리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이 당당해졌다. 천지를 울리는 우리의 함성에 몽고군이 움찔했다. 기세가 떨어진 몽고군은 갑자기 공격을 멈추더니 도망가기 시작했다. 의외의 공격에 놀란 것 같았다. 몽고군은 많은 사상자가 있는 반면에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다는 게 정말 안심이었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다고!”

석돌은 두 손을 하늘높이 들며 소리쳤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였다. 나도 두 손 높이 들었다. 할 수 있다는 건 정말로 기분 좋은 말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쯤 빠지게 도망간 몽고군을 기억합니까? 세계최강의 몽고군이 우리들의 힘으로 도망갔습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와아아-!”

설이나 추석 때보다 더 신난 것처럼 큰 함성이 쏟아져 나왔다. 귀가 찢어지게 아팠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좋았다.

시간이 지나고, 마을사람들은 보름달이 떠있는 늦은 밤까지 훈련에 열중했다. 기술을 익히기 보다는 대련위주의 실전연습에 온 힘을 쏟았다. 덕근이는 활을 연습하는 석돌을 보러 총총걸음



으로 갔다.

“덕근이 왔다.”

“아저씨, 연습은 잘 되세요?”

활시위를 당기던 두식은 과녁을 뚫어져라 보며 말했다. 이윽고 팽팽하게 당겨졌던 활시위가 늘어졌다. 화살은 과녁을 빗나갔다.

“아 왜 도통 맞지를 않냐.”

“푸핫, 여태까지 백번 넘게 쏘서 한 번도 과녁 못 맞춘 건 너 혼자다.”

석들은 호쾌하게 말했다.

“뭐? 그럼 누가 더 잘하나 내기하자고, 내기!”

“내기? 그거 좋지. 어이, 기왕 하는 김에 모두 다 하자고. 내기는 과녁을 제일 잘 맞히는 사람이 국밥을 사는 걸로 하자고. 좋지?”

“제일 잘 맞히는 사람이라뇨?”

덕근이는 제일 못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못 맞히는 사람이라는 점에 의문을 품었다.

“당연한 거 아니냐. 실력이 좋은 사람이 전쟁에서 살아남지. 그래야 우리가 국밥을 먹을 수가 있지. 괜히 못하는 놈으로 했다가 국밥도 못 얻어먹으면 뭐가 되냐.”

같이 연습하던 아저씨들은 한바탕 웃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봐, 이번 전투가 끝나면 이제 못 보게 되는 걸까?”

“이 사람이, 약한 소리 하지를 마. 될 것도 안 되니깐.”

덕근이는 각각의 과녁을 향해 차례대로 서서 활시위를 당기는 아저씨들을 보았다. 정신집중을 하고, 모두가 화살을 쏘았다. 환한 달빛이 과녁을 비추었다. 기대할 것도 없이 화살은 전부 다 빗나갔다. 연달아 세 번을 더 쏘아도 과녁을 맞는 화살은 단 하나도 없었다.

덕근이는 얼른 과녁으로 뛰어갔다. 과녁의 주변에는 화살들이 바닥에 꽂혀있었다. 덕근이는 그것들을 모두 다 뽑아 가져왔다.

“아저씨들은 명사수인데요. 죄다 명중 이예요.”

“예끼! 어른을 놀리면 못써!”

“그래도, 몽고군은 워낙 많아서 아무렇게나 쏘도 다 맞잖아요? 그러니깐 백발백중이죠.”

석들은 한방 맞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허허, 거참. 말 되네.”

이어서 한바탕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많이 시간이 흐르고, 태양이 슬금슬금 머리를 내밀었다. 성 앞에는 몽고군이 기세 좋게 서있었다. 그 가운데에 살리타이가 거만하게 서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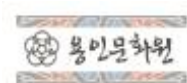
성벽을 찬찬히 뜯어보던 살리타이는 손을 흔들었다. 그의 손짓 한 번에 엄청난 수의 대군이 돌진해왔다. 사다리가 순식간에 울러지고, 몽고군이 그것을 타고 올라왔다. 스님과 사람들은 그것을 막았고, 덕근이와 부녀자들은 돌과 뜨거운 물을 부었다. 그럴 때마다 많은 몽고군이 땅으로 떨어졌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성문이 위험해! 도와줘!”

몽고군들은 커다란 통나무를 구호에 맞춰 성문에 쪼았다. 열 명쯤 되는 장정들이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커다란 정문이 차츰 밀리기 시작했다. 쿵쿵거리는 중압감이 모두의 가슴을 짓눌렀다.

“성문을 굳건히 해라!”

돌맹이를 나르던 석들은 성문을 있는 힘껏 밀었다. 많은 사람들이 합세하여 성문을 막는 사



이, 몽고군 세 명이 성벽을 타고 올라왔다. 다행이도 사다리는 도끼로 찍어 부셔졌기 때문에 몽고군은 더 이상 들어올 엄두를 못 내었다.

공격이 실패하자 북소리가 들려왔다. 후퇴하라는 소리였다. 사람들은 남은 몽고군 세 명을 둘러쌌다. 몽고군은 갈팡질팡하여 검을 들고 서로의 등을 맞붙였다.

“성문을 열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놈들은 몽고군이라고요. 형님의 부모님도 저 놈들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두식은 석들의 말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들을 죽이면 뭐가 되겠느냐, 똑같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입니다. 살생은 백번 천 번해도 옳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저들이 될 뿐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럼, 성문을 열어주십시오.”

남은 성문이 열리는 기괴한 음이 들리고, 몽고군 잔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쫓겨 도망쳤다.

“고것들 도망하나는 선수구나.”

스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다.

“밥이 왔어요, 밥이 왔어!”

엄마와 옆집 아주머니가 크게 소리쳤다. 사람들은 활기를 띄며 주먹밥을 건네받았다.

그러던 도중이었다. 갑자기 뿔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귀에 대고 부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소리였다.

“모, 몽고군이 다시 쳐들어왔다!”

땅을 보던 마을 사람이 크게 외쳤다. 사람들은 아연질색하며 먹던 주먹밥을 내려놓고 제자리로 찾아 돌아갔다.

전열을 가다듬은 몽고군 가운데에 황금색 갑옷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장수가 말을 타고 있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정도로 화려한 갑옷이었다. 더불어 보는 순간 장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그가 손짓하자마자 몽고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었다.

“화살을 쏘라!”

스님이 급하게 외쳤다. 몽고군의 돌진은 그 외침소리조차 묻힐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성벽에 수많은 사다리가 걸쳐졌다. 끝을 뽀족하게 깎은 커다란 통나무가 성문을 찼다. 무언이든지 압도적으로 불리했다. 사람들은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의 몽고군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너무나 차이가 심했다. 정예병들로 구성된 몽고군들에게 처참하게 밀렸다. 성문은 버티지도 못하고 그대로 몽고군이 밀고 들어왔고, 성벽으로 올라온 몽고군들에 의해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대부분이 점령당했다.

“황금 갑옷을 입은 자를 쏘아라!”

그때, 누군가의 외침이 크게 들렸다. 활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노리고 활시위를 당겼다. 특히 석들과 두식의 눈빛이 매의 눈처럼 날카로웠다. 그들은 실패할 수 있다는 압박감에도 굴하지 않았다. 자신 있게 활시위를 크게 잡아당겼다. 그리고 정확히 목표물을 향해 활을 조준했다. 심장이 마구 뛰고 눈앞이 새까맣게 되었지만, 한 치의 떨림도 없이 조준했다. 그리고 동시에 손을 놓았다. 화살들은 일직선으로 날아갔다. 바람을 가르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날카로운 화살촉은 속도에 탄력을 받아 적장의 가슴 깊숙이 꽂고 들어갔다.

황금 갑옷을 입은 적장이 무릎을 굽혔고, 천천히 쓰러졌다. 두 개의 화살이 그의 양 가슴을 관통했던 것이었다. 하늘에는 뿔피리가 울려 퍼졌고, 몽고군들은 공격을 멈췄다. 천천히 뒤로



물러서더니 삽시간에 도망쳤다.

“석돌과 두식이 적장을 쓰러뜨렸다!”

스님이 크게 외쳤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서 말을 못하겠다는 듯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침묵도 잠시, 붓물이 터진 것처럼 모두가 크게 함성을 질렀다. 몽고군의 공세에도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적장까지 잡아낸 것이었다.

사람들은 모두가 기뻐했다. 원래부터 먹을 것조차 넉넉지 못한 마을이었지만 축제를 하기로 했다. 축제는 이틀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틀 후, 임금의 친서를 가져온 전령이 우리를 이끈 스님을 찾았다. 스님은 광장에서 그를 맞이하였다. 새벽녘이라 사람들은 잠에 빠져있었다.

“스님의 성함이 김윤후 되십니까?”

전령은 말에서 내려 공손하게 말했다.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속세의 이름을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범명을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범명 또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전령은 종이를 꺼내어 건네주었다. 스님은 그 종이를 펼쳐 읽더니 안색이 파래졌다.

“이런 걸 받자고 한 일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거두어 주십시오. 여기를 지킬 수 있던 건 모두 이 마을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받을 것이 아니 되지요. 그리고 이 편지를 임금님께 전해드리 주십시오.”

스님은 옷소매에서 곱게 접은 종이를 건네주었다.

“알겠습니다. 임금님께 전달하겠습니다.”

품속에 편지를 넣은 전령은 인사를 한 뒤,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스님, 무슨 편지예요?”

덕근이는 스님이 읽었던 편지에 대해 물었다.

“나라에서 벼슬을 주겠다고 했구나, 하지만 스님의 몸으로 그럴 수는 없단다.”

“왜요? 벼슬이라니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게 호들갑 피울 것도 아니다. 덕근아, 석돌과 두식이 아저씨의 말을 잘 들어야한다. 나는 이제 떠날 때도 되었구나.”

스님은 갓을 쓰며 말했다. 놀란 덕근이는 두 눈을 크게 떴다. 말도 없이 갑자기 떠난다니 마을사람들이 두고두고 섭섭할 것이었다.

“싫어요! 저도 따라갈래요.”

“몽고군의 침략을 받은 건 우리들뿐이 아니란다. 다른 마을도 도와줘야한단다. 그러니 앞으로는 덕근이가 이 마을을 지키도록 해라.”

“하지만.”

“이 마을에 남아 어머니를 잘 보살펴드려라. 전쟁은 한번이면 족한 것이란다.”

“네에.”

스님의 엄한 말에 덕근이는 머리를 숙여 힘없이 대답했고, 스님은 길을 떠났다.

해와 달이 수없이 뜨고 졌을 무렵, 덕근이는 어느 때처럼 밭에서 일을 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스님이 여러 곳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언젠가는 자신도 스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 것이라고 결심했다.

